

완도화흥초, 교육가족이 함께 하는 '나눔바자회' 개최

공모 사업 예산 활용 및 기부물품 약 30여 박스 수집 살거리·먹거리·놀거리로 수익금 늘려, 이웃과 나눠

찬 바람이 부는 겨울, 화흥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포함한 교육가족들은 이웃들과 따뜻한 정(情)을 나누고자 최근 나눔 바자회를 열었다. 교육 가족들은 각자 자신에게는 필요가 없지만 쓸만한 물건을 기부하였고 약 30여 박스의 물품이 수집되었다. 이에 교직원들은 다양한 공모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좋아할만한 물건을 보충 마련하여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

한편, 생태부에서는 기후행동 캠페인의 일환으로 자신들이 직접 디자인한 그림을 학부 모회의 도움을 받아 굿즈로 제작한 뒤 판매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부모회에서는 맛있는 주전부리로 떡볶이, 어묵, 샌드위치, 쿠키, 놀이부스 등을 준비하고 학생들에게 판매하여 수익금을 내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번 행사로 수익금 총 715,000원을 모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12월 마지막 학생 자치

활동 시간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기부처를 정했고 그 결과, 해외, 및 장애인 단체에 기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본교는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 UN 산하 유니세프에 20만원, 완도군장애인복지관 고금-약산 장애인차량 구입 사업 지정 기부금 30만원, 희망2030나눔캠페인에 215,000원을 최종 기부하였다.

이번 행사로 수익금 총 715,000원을 모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12월 마지막 학생 자치활동 시간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기부처를 정했고 그 결과, 해외, 및 장애인 단체에 기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본교는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 UN 산하 유니세프에 20만원, 완도군장애인복지관 고금-약산 장애인차량 구입 사업 지정 기부금

30만원, 희망2030나눔캠페인에 215,000원을 최종 기부하였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강진중학교, 교내문집 '시절인연' 발행



강진중학교는 최근 '살과 죽음, 나, 2022년을 돌아보며'라는 세 가지 주제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교내문집 <시절인연>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집은 학생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진행되어 속마음을 진솔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다. 더불어 지금까지 경험한 일을 되돌아보는 글쓰기 활동으로 진지한 자아성찰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제 1부 '살과 죽음'에서는 평소에 크게 와 닿지 않았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며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인생의 유한성을 깨닫고 타인의 욕망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

으며 주체적인 자세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글이 많았다. 그리고 제 2부 '나'에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나름의 정의를 내리며 희망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또한 진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어 깊은 공감을 자아냈다. 특히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는 것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반성과 함께 한층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제 3부 '2022년을 돌아보며'에서는 소중한 가족과 친구, 선생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글로 표현하여 감동을 더했다. 물론 실수에 대한 깊은 후회와 좌절의 순간도 겪어 힘들었다는 안타까운 일화도 있었지만, 다가올 겨울방학과 내년엔 대한 계획과 포부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였다.

강진=김영일기자

전남자연탐구원,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 직무연수



전라남도자연탐구원이 최근 5일 자연탐구원에서 도내 초·중등 관리자(교장,교감,교육전문직원)를 대상으로 2023. 동계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운영했

초·중등 관리자 대상 생태환경교육 역량강화 방안 모색

다. 2023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현장의 요구에 따라 마련된 이번 연수는 초·중등 관리자의 환경교육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 자연생태환경의 중요성 및 환경 교육과정 사례 발표 △ 우리 꽃 야생화의 이해와 활용 △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생태환경교육 실제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학교 교육과정 운영 시 생태 감수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환

경교육 지식과 삶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북 푸른꿈 고등학교 교사인 고성원 강사는 "기후 위기 시대에 학교환경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학교에서 학생들의 환경 감수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광진 부원장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크므로 생태환경교육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화순공공도서관, 도서관 일일체험학습 운영

화순공공도서관이 1월부터 12월까지 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일일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 일일체험학습'은 희망 기관의 신청을 받아 유아·어린이에게 사서와 그림책 독서회 '다독다독' 봉사자가 도서관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그림책 읽어주기 등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체험학습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구연동화, 캔버스 가방 만들기, 도서관 캐비 색칠하기 등 여러 체험을 통해 도서관과 책을 가까이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체험학습은 상시 신청 받고 있으며, 12월 1일까지 운영한다.

화순=박순철기자

독거 노인분들과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 전해

함평 월야초등학교는 지난 5일 월야초 학생회 주관으로 34학년 학생들이 월야 지역의 독거 노인분들과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온도'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나눔 행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월야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작은 행복을 드리고 싶다는 의견으로 시작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 이날 행사는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월야초 학생들과 어르신들의 웃음으로 파스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사랑의 온도' 선물에 들어간 용품들은 월야초 파랑새 자치회를 통해 선정된 방한 용품(기모 귀마개, 핫팩)과 주전부리로 준비했다. 12월

간 지속된 한파로 인해 춥고 외로운 겨울을 나실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나눔 활동으로 학생들은 봉사와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금석마을과 문화마을 이장님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마을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에게 선물이 모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월야마을공동체가 함께하는 의미있는 봉사활동 시간이었다.

정석모 학생은 "좋은 것을 나누는 기쁨보다 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릴 수 있을



까 고민하다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방한용품을 드려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나눔 활동을 마치고 나니 34학년 친구들이 오히려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을 듬뿍 받고 온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